박원자의 母情佛心 33 수도암 원제 스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수도암에서 수행 중인 원제 스님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출가를 선언했다. 단호하게 출가하는 날 어머니는 아들을 붙잡고 "왜 출가하냐"며 울었다. 수행하던 어느 날, 철자도 띄어쓰기도 안 된 어머니의 문자를 받았다. 아들 스님은 모정이 사무쳐 숨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꼭감 잘 받았습니다"

〈곶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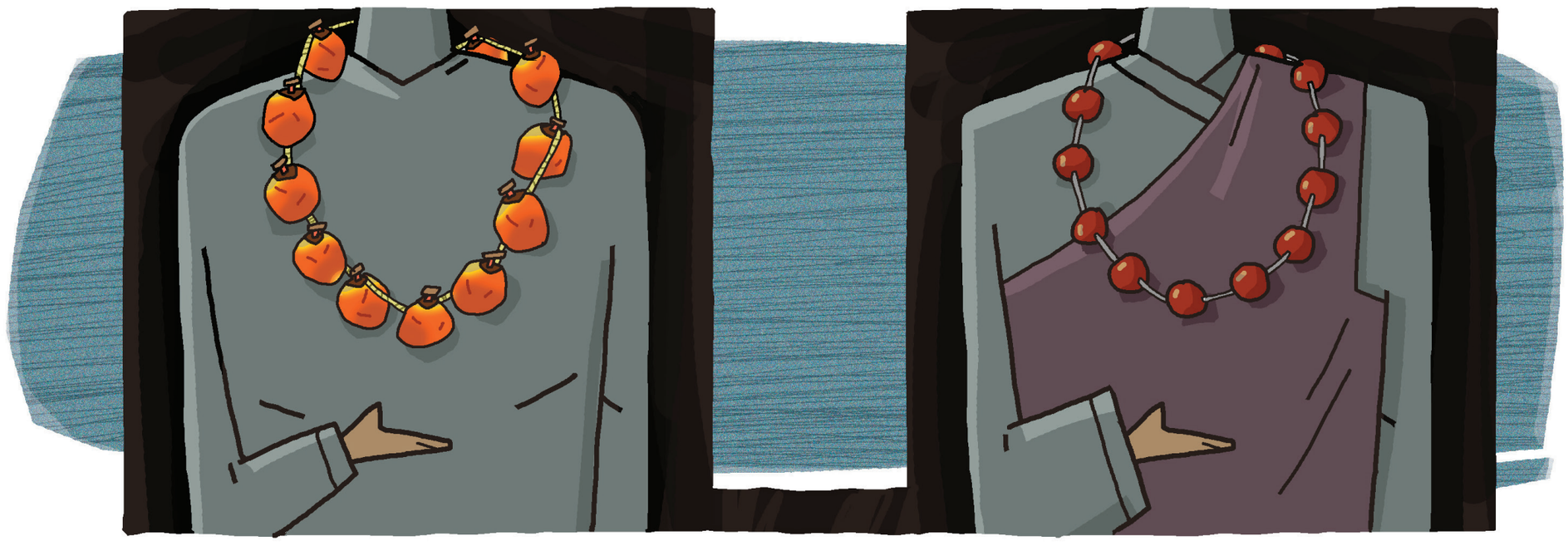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대학졸업을 앞두고 선언한 출가
모친은 "왜 출가하냐"며 울먹여
철자 · 띄어쓰기 못한 모친 문자
어머니 마음사무쳐 숨어 울었다

십오륙 년 전이다. 해인사 퇴설당을 자주 드나들었다. 종정이자 해인사 방장이신 법전 스님이 주석하고 계셨고, 필자는 그때 그 스님의 일대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퇴설당문은 늘 잠겨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면 낮은 담 너머로 종정을 모시는 시자 스님들이 보였다. 그 중 한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나와 문을 열어주곤 했다. 단정한 몸가짐에 풋풋한 젊은 스님들을 보면 엄마 마음으로 돌아가 흐뭇한 웃음이 피어오르곤 했다. 새로운 출가의 길 앞에 서있는 설렘이 보였고, 젊은 나이에 출가해서 그곳에 있는 자체만으로 그들이 빛나보였다. 시자 스님들이 내온 찻상을 마주 하고 앉아서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노라고 장담할 수 있는 법전 스님의 일생을 들었다.

책이 무사히 세상에 나왔고 십 수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때 그 시자 스님들은 종정스님의 제자 혹은 손상좌가 되었고, 세월이 흘러 선승으로 또 교계 방송에서 인기 있는 스님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그 가운데 유난히 키가 컸던 행자 시자가 수도암의 원제 스님이다.

어느 비구니스님 한 분이 '모정불심'의 주인공으로 원제 스님을 추천했다. '원제 스님 글이 좋더라'는 것이 이유였다. 여든이 넘은 노스님께서 보았다는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와 〈다만 나로 살 뿐〉을 구입했다. 읽으면서 입적하신 스님의 은사인 법전 스님을 떠올렸다. '순수'와 '진심'이라는 공통분모가 느껴졌다. 그리고 최근 몇 번째 읽고 있는 서양의 영성가 아디야 샨티의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를 떠올렸다. 고통의 원인과 그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에 감탄을 거듭했던 그 책과 결이 흡사하게 느껴졌다.

출가한 지 16년 차인 원제 스님은 스물여덟이 되던 설날 아침에 출가했다. 차례와 세배를 마치고 떠나는 아들을 아버지는 바둑판에 눈을 둔 채 외면했다. 누이 둘은 발을 동동 굴렀다. 어머니는 집을 나서는 아들의 팔을 놓지 못한 채 울면서 아파트 입구까지 따라 나왔다. 아들은 울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소녀가 울고 있구나. 무엇이 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가!'

아들은 알고 있었다. 저리 서럽고 안타까운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바뀐다는 것을. 일찍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 떠나는 길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제 자리를 찾아 가게 마련인 것, 그래서 힘들겠지만 버텨보시라고 중얼거렸다.

대학 졸업을 앞둔 한 달 반쯤 전에 가족회의를 소집해 출가를 선언했었다. 한 달 동안 인도 성지를 순례하고 돌아와 설날 아침에 출가할 것이며, 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도 아버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어머니는 눈물이 가득한 채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었다.

"네가 왜 출가를 하니?"

출가가 생사해탈의 길임이 너무도 분명해서 그 길을 찾아 떠나는 아들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앞으로 제가 갈 길이예요. 오랫동안 준비해온 거 엄마도 알지 않았어요?"

서울로 유학해 대학에 다니던 아들이 군대에 다녀와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도 영 취업할 준비를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졸업 후의 계획에 대해 도무지 얘기하는 바가 없었다. 해인사로 취업할 준비를 하면서 대학 4학년 때 〈육조단경〉을 비롯해 조사어록들을 읽고 있던 아들이었으나 대전에 사는 어머니는 이를 알 길이 없었다. 함께 살고 있는 대학생 딸에게 아들의 근황을 물으니, 개량 한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고, 방에 향을 피워놓고 벽을 보고 계속 몇 시간씩 있다고 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아들이 저러다 출가하지나 않을까 불안해했던 어머니였다. 그랬던 어머니가 시치미를 뚝 떼며 아들에게 매달렸다.

"아니야, 나는 하나도 몰랐어. 우리 아들이 왜 출가를 한다는 거야?"

어머니의 순진한 거짓말 앞에서 아들은 크게 웃고 말았다.

출가는 일생일대의 큰일이었다. 한 번 해볼까도, 가족과 합의해서 결정할 사안도 아니었다. 그래서 하루 꼬박 여섯 시간씩 좌선을 하고 여자 친구와도 헤어졌다. 면밀히 준비해왔으므로 어떤 이유로도 바꿀 수 없는 확고한 결정이었다. 아들은 그렇게 미련 없이 집을 떠났다.

"어려서부터 일찍 정서적인 독립을 이루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지금도 어머니를 보면 한 소녀를 마주 대하는 느낌이에요. 어머니는 생각의 지속력이 짧아요. 길지 않아요. 그런 분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지속력이 길면 생각으로 치우쳐버리는 측면이 있는데, 어머니는 생각으로 치우치지 않는 분이에요. 즉흥적이고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 강해서 순수하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어머니를 울리며 지갑을 책상 위에 둔 채 주민등록증, 안경 하나, 해인사까지 가는 차비 2만 원만을 들고 떠났던 아들이 어머니를 만난 것은 그로부터 6년 후 봄이었다. 해인사에서 행자생활을 마치고 사미계를 받은 뒤 선원에서 정진을 하던 중, 나라밖 세상 속에서 좌선을 해볼 생각으로 세계여행을 앞두고 있을 때였다. 할머니와 부모님, 누이 둘과 그에 딸린 식구들이 수도암으로 찾아왔다. 어머니의 머리에는 희끗희끗 흰머리가 나 앉아있었다.

차를 마시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여전히 '사람'들로 가족들이 다가왔다. 출가할 때의 생각은 맞았다. 어머니는 이제 울지 않았다. 그때의 원망과 서운함을 잊은 것 같았다. 스님은 그들을 '사람들'로, 가족들은 스님을 한 사람의 '출가승'으로 대하며 담담하게 차를 마셨다. 그 어떤 감정이나 모양도 고정된 실체가 없음은 확실했다.

2년 동안의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온 뒤부터 가끔씩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다. 추석 때면 대전의 부모님 집을 찾아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에 차례를 지낸 다음 수도암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동안거에 들어가 새해를 맞을 때면 어머니께 크고 실한 곶감과 한과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해 송광사에서 동안거를 보내던 때였다. 택배를 받은 어머니가 짧은 문자를 보내왔다.

"꼭감과한과을잘받았습니다건강하셔요"

오후 정진에 들어가 좌복에 앉아있는데 띄어쓰기도 없고 철자법도 맞지 않은 이 문자가 화두 대신 들어왔다. 어머니는 왜 곶감을 '꼭감'이라고 썼을까. 그러다 어머니와의 추억이 떠오르면서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도 없는 욕실로 들어가서 흐느껴 울고 말았다. 한 소녀가 어머니로 다가온 순간이었다.

처음 어머니가 어머니로서가 아닌 순수한 소녀처럼 느껴졌던 게 대여섯 살 때쯤이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였다. 나도 죽고 엄마도 아빠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그 일이 너무 큰 충격이고 심각해서 엄마에게 '엄마, 나 죽는대' 하며 슬피 울었다. 아들의 우울한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깔깔 웃었던 어머니는 그때 스물아홉쯤이었다. 엄마이기보다는 그저 소녀일 나이였다.

중학교 때의 어머니는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었다. 농촌지도소에 근무했던 가장의 박봉으로는 아이들 셋을 키우기가 힘에 겨웠기 때문에 연작은 가게였다. 하루는 아들이 학교 임원인 탓에 어머니회 모임에 다녀온 어머니가 잔뜩 주눅이 들어있었다. 많이 배운 어머니들 틈에서 초등학교만 나온 당신의 처지가 부끄러웠던 것이다. 그런 어머니가 안쓰러웠다.

대학생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했다. 남들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자동차 이름을 다 읽고 아는데 자신만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화에 끼어들 수 없다는 어머니 말에 가슴이 먹먹했었다. 아들에게 알파벳을 배우고 길거리를 지나가는 차 이름을 가볍게 불러대던 어머니였다.

3년 전, 예순다섯의 어머니에게 첫 책을 보냈다. 시 쓰기를 좋아하셨던 아버지는 '네가 이 정도 깊이 있는 글을 쓴 줄 몰랐다' 고 하셨다. 아마 어머니는 다 읽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래도 내 아들이 괜찮은 스님이 된 것은 아신 것 같았다. 다니는 공주 동학사에 가서 '원제 스님 엄마' 라고 하면 환영해주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그동안 아들 스님이 훌륭한 은사 스님을 한동안 시봉하며 출가자의 법도를 몸에 익힌 것을 모른다. 젊음을 다 바쳐 얼마나 치열하게 수행했는지도 모른다. 2년 동안 세계 일주 여행을 하면서도 매일 108배를 거르지 않은 것도, 불기자심(不欺自心, 네 마음을 속이지마라)이라는 말뚝 하나를 가슴에 품고 다닌 여행을 통해 마음의 지평이 얼마나 드넓어졌는지도 모른다.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활발발한 스님이 된 것도 모른다. 이제 선원을 졸업한 것도 알지 못한다. 다만, 방송에 나와서 법문도 하고 책도 출간한 아들 스님을 보면서 제 자리를 잘 찾아간 것 같다고 느낄 뿐이다.

아들 스님의 책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스님의 어머니는 아들 스님보다 한 수 위라는 생각이 든다. 출중한 출가자를 낳은 어머니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작가〉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